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번호

1. 다음 대화의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본성이 변화될 수 있도록 예법을 배우고 익힌다.
- ② 시비와 선악을 구별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간다.
- ③ 날마다 옳은 일을 함으로써 의로움을 쌓아 나간다.
- ④ 모든 생명체를 아무 조건 없이 동등하게 사랑한다.
- ⑤ 세속에서 벗어나 종교적 계율을 따르며 수양에 힘쓴다.

2. (가), (나)는 사회사상이다. (가)에 비해 (나)가 지닌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우리는 경제 권력을 민중에게 넘겨줌으로써 모두가 평등한 노동 공동체를 만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생산은 전체 민중의 이익을 위해 계획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계획이 모든 생산수단의 공유를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나)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시장 경제를 확대하여 경제의 효율성이 최대가 되게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권력의 간섭 없이도 우리의 행위들이 조정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자유로운 경쟁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3. 서양 사상가 갑, 을의 공통된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인간은 선택의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게 된다. 불안을 극복하고 참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신 앞에 선 단독자'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을: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 인간은 자신을 창조한 것이 아니기에 선고받은 것이고, 세상에 내던져지자마자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기에 자유로운 것이다.

- ① 참된 실존을 회복하기 위해 종교에 귀의해야 한다.
- ② 한계 상황을 체험함으로써 절대자를 만날 수 있다.
- ③ 지성을 함양함으로써 불안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 ④ 진정한 자신의 삶을 위해 주체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
- ⑤ 도덕규범을 충실히 지킴으로써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4. 다음을 주장한 동양 사상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생성에 대해 올바르게 본다면 없음[無]은 있지 않으며, 소멸에 대해 올바르게 본다면 있음[有]도 있지 않다. 이것이 두 극단에서 벗어난 중도(中道)이다. 무명(無明)으로 인해 고(苦)가 모이는 것이며, 무명을 멸(滅)함으로써 고가 없어지는 것이다.

— < 보 기 > —

ㄱ. 중도는 있음과 없음 모두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ㄴ. 고통의 소멸은 중도의 수행을 통해 가능하다.

ㄷ. 무명을 추구할 때 모든 괴로움이 사라진다.

ㄹ. 생성과 소멸에 대한 바른 인식이 무명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5. (가), (나)는 사회사상이다. (가)에 비해 (나)의 입장에서 강조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개인은 자신의 삶의 방식대로 살 권리를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한 사람의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의 삶의 방식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전제하면 안 된다.

(나) 개인은 공동체의 목적과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다. 국가는 공동선을 설정하고 구성원들이 그 공동선의 실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 ① 인간은 스스로 삶의 목적을 선택하는 독립적 존재이다.
- ②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 ③ 공동선은 별도로 있지 않고 개개인의 선을 합한 것이다.
- ④ 개인의 정체성은 공동체의 전통과 가치 속에서 형성된다.
- ⑤ 국가는 개인에게 특정한 가치를 따르도록 지시하면 안 된다.

6.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가)

갑: 국가는 사람들의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리바이어던이 절대 권력으로 평화를 유지하고 사회를 방위할 때 달성될 수 있다.
 을: 모든 정치 운동은 노동자 계급의 경제적 해방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노동자 계급의 투쟁으로 모든 계급 지배가 폐지될 때 달성될 수 있다.

(나)

갑, 을 사상가의 입장을 탐구한다.

- ① A: 주권자인 모든 국민을 통치의 주체로 보아야 하는가?
- ② B: 생산수단이 공유되는 평등한 사회를 추구해야 하는가?
- ③ B: 군주에게 절대권을 부여하여 사회 혼란을 극복해야 하는가?
- ④ C: 국가는 불평등 해소보다 사적 소유권 보장에 힘써야 하는가?
- ⑤ C: 자본가와 노동자의 상호 협력으로 사회를 통합해야 하는가?

7. 갑, 을, 병은 고대 동양 사상가들이다. 이들이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하늘이 나에게 덕(德)을 주었다. 천명(天命)을 두려워하는 것이 군자이며, 천명을 모르면 군자라고 할 수 없다.
 을: 하늘이 만물을 기를 때 모든 것을 평등하게 대한다. 높은 곳에 있다고 해서 귀한 것이 아니고, 낮은 곳에 있다고 해서 천한 것도 아니다.
 병: 하늘의 운행이 요(堯) 때문에 바른 것도 아니고 결(桀) 때문에 어그러지는 것도 아니다. 자연의 운행과 사람의 일은 독립적인 것이다.

	~이	~에게	반론
①	갑	을	하늘은 인간에게 자연을 정복할 능력과 권리를 부여한다.
②	을	병	하늘은 인간의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 벌을 내린다.
③	병	갑	하늘은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인간에게 도덕성을 부여한다.
④	갑, 을	병	하늘은 인간이 따라야 할 삶의 표준이 아니다.
⑤	을, 병	갑	하늘은 인간의 도덕적 본성의 근원이 될 수 없다.

8. 사회사상가 갑, 을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모든 사람이 동등한 자유를 최대한 누리고,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며, 최소 수혜자가 최대 이익을 보장받게 될 때 정의가 달성될 수 있다.
 을: 특정 영역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지위를 가지고 다른 영역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할 수 없는 복합 평등이 실현될 때 정의가 달성될 수 있다.

- ① 복지 증진은 기본적 자유 보장보다 항상 우선되어야 하는가?
- ② 모든 사회적 가치는 개인의 필요에 따라 분배되어야 하는가?
- ③ 정의의 원칙은 가상적 계약 상황에서 도출되어야 하는가?
- ④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만 하면 분배 정의가 실현되는가?
- ⑤ 정의가 실현되어도 경제적 불평등은 존재할 수 있는가?

9.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정부의 시민이 되는 것은 오직 자신의 동의에 근거한다. 비교적 평화로운 자연 상태를 떠나 시민이 되려는 것은 자신의 생명, 자유, 재산의 보존을 위해서이다.
 을: 정부에 대한 복종의 의무는 오직 정부로부터 얻게 되는 이득에 근거한다. 이 이득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정부에 저항하는 데 반감을 느낀다.

- ① 갑: 시민에게는 국가에 대해 저항할 권리가 전혀 없다.
- ② 갑: 시민의 명시적 동의가 정치적 의무의 중요한 근거이다.
- ③ 을: 국가에 대한 시민의 복종은 이타적인 본성에서 비롯된다.
- ④ 을: 시민은 국가가 주는 이익이 없어져도 정치적 의무를 진다.
- ⑤ 갑, 을: 국가에 대한 시민의 정치적 의무는 천부적인 것이다.

10. (가)의 갑은 고대, 을은 근대 서양 사상가이다.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들어갈 공통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갑: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관념이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사건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말고, 사건이 일어나는 대로 거기에 우리의 바람을 맞춰야 한다.
 을: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 감정을 이성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신, 즉 자연의 본성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산출되며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감정은 없다.

(나) _____ ㉠ _____. 그러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것이다.

- ① 인격신이 정한 우주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라
- ② 자유 의지를 발휘하여 주어진 운명을 극복하라
- ③ 정념의 지배를 받지 말고 이성에 따라 생활하라
- ④ 만물에 대한 관조를 통해 자연법칙에서 벗어나라
- ⑤ 온전히 이성적인 존재가 되어 모든 감정을 제거하라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3

11. 갑, 을은 고대 서양 사상가들이다. 갑에게 을이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떤 것이 각 개인에게 지각(知覺)되는 대로 각 개인에게는 그렇게 존재한다. 인간이 모든 것의 척도인 것이다.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영혼을 수련함으로써 참된 앎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앎을 통해 인간은 바르게 살 수 있다.



갑



을

- ①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 ② 가치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개인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 ③ 관습을 따르는 것이 사회적 성공에 유용함을 알아야 한다.
- ④ 객관적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성보다 경험을 중시해야 한다.
- ⑤ 자연보다 인간과 사회를 진리 탐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12. (가) 사상가의 관점에서 볼 때, 퍼즐 (나)의 세로 낱말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천지는 장구(長久)하다. 천지가 장구할 수 있는 것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기 때문이다. 성인(聖人)은 자신을 뒤로 하기에 앞에 있는 것이고, 자신을 버리기에 자신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나)	<table border="1" style="margin: 0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r> <tr><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A)</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B)</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r> <tr><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C)</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r> <tr><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r> </table> <p>[가로 열쇠] (A): 텅 비어 실상이 없음. “공(空) 사상은 일체의 사물이나 현상은 아무런 가치도 지니지 않는다는 ○○주의가 아니다.” (C): 백성을 위함. “민본주의는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 정신과 백성을 위하는 ○○ 정신을 담고 있다.”</p> <p>[세로 열쇠] (B): 개념</p>							(A)	(B)					(C)							
	(A)	(B)																			
		(C)																			

- ① 나쁜 짓을 하지 않기 위해 계율을 지키는 것이다.
- ② 도덕규범에 맞추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것이다.
- ③ 의식을 집중시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 ④ 인위적인 규범에서 벗어나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다.
- ⑤ 모든 존재와 현상이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생겨나는 것이다.

13.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덕은 본성적으로 즐거운 삶과 연결되어 있으며, 즐거운 삶은 덕과 분리할 수 없다. 참된 즐거움은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 불안이 없는 상태이며, 모든 고통과 불안이 부재할 때 즐거움은 정점에 도달한다.

- ① 진정한 행복 실현을 위해 모든 욕구를 제거해야 하는가?
- ②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를 버리고 절제하며 살아야 하는가?
- ③ 감각적 쾌락을 누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가?
- ④ 은둔 생활이 아니라 공적인 삶에서 행복을 도모해야 하는가?
- ⑤ 개인의 쾌락보다 사회 구성원 전체의 쾌락을 추구해야 하는가?

[14~15] 갑은 중국 사상가, 을과 병은 한국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갑: 사단은 정(情)이고 사덕은 성(性)이다. 드러난 정을 통해 성의 본연을 알 수 있는 것은, 밖으로 드러난 물건의 실마리를 보고 물건이 안에 있음을 아는 것과 같다.
 을: 사단은 이(理)만을 말하고 칠정은 이와 기(氣)를 겸하여 말하는 것이다. 사단과 칠정은 모두 기가 발하여 이가 그것을 탄 것일 뿐이다.
 병: 사단은 인성(人性)이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며, 사단을 확충하지 못하면 사덕은 이루어질 수 없다. 측은(惻隱)은 인(仁)의 시작인 것이다.

14. 갑, 을, 병 모두가 질문에 바르게 대답한 것은?

	질문	갑	을	병
①	사덕은 모든 욕구가 제거될 때 드러나는가?	예	예	예
②	사단을 확충해야 바람직한 인간이 되는가?	예	예	아니요
③	사단을 통해 사덕이 마음에 내재함을 알 수 있는가?	아니요	예	아니요
④	사덕은 사단을 실천함으로써 형성되는가?	아니요	아니요	예
⑤	사덕은 모든 사람에게 선천적으로 부여되어 있는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15.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가 갑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마음에서 생생하게 활동하는 이치[生理]는 능히 밝게 깨달을 수 있으며 만사에 두루 통하여 사단을 모두 행할 수 있다. 이것이 이른바 양지(良知)이며 곧 인(仁)이다. 따라서 사물에서 이치를 찾는 것은 잘못이다.

- ① 사람의 마음에는 이치가 갖추어져 있다.
- ② 도덕의 기준은 오로지 마음에 있을 뿐이다.
- ③ 사람에게서는 선천적인 도덕 판단 능력이 있다.
- ④ 도덕규범을 통해 본성을 변화시켜야 선행을 할 수 있다.
- ⑤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해야 도덕이 실현될 수 있다.

16. 다음을 주장한 현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대부분의 여성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정서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에 주목하며,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도덕 문제를 논의하기를 선호한다. 이들은 배려하고 배려받는 관계를 중시하며 추상적 추론보다 배려를 통해 도덕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여성들의 이런 관점이 내가 정립하고자 하는 윤리의 토대를 이룬다.

- < 보 기 > —
- ㄱ. 인간의 연대성보다 개인의 독립성을 중시해야 한다.
 - ㄴ. 배려의 감정을 도덕적 행위의 원천으로 보아야 한다.
 - ㄷ. 행위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도덕 판단을 해야 한다.
 - ㄹ. 도덕적 추론 능력 함양이 도덕 교육의 궁극 목표여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하여[守心正氣] 한울님을 따르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룬다. 그런데 서양 사람은 부모가 죽은 후에 제사도 안 지내니 이 무슨 일인가.
 을: 하나의 원[一圓]은 우주와 일체 중생의 본원이며 만물의 근원이다. 또한 생멸과 가고 옴에 변함이 없는 자리이며 선악의 업보가 끊어진 자리이다.

- ① 갑은 원한을 풀면[解冤] 육체가 영생한다고 주장하였다.
- ② 을은 성리학적 세계관을 통한 외세 극복을 강조하였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후천 개벽(後天開闢)의 도래를 주장하였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유·불·도 사상을 조화시키고자 하였다.
- ⑤ 갑, 을은 나라의 수난과 민중의 고통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18. 갑, 을은 서양 사상가들이다.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선은 인간이 신과 접촉하고 인간을 위한 신의 계획을 완성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인간 자신의 완전성이다. 완전한 행복은 자연적 덕을 갖추고 믿음, 소망, 사랑을 실천해야 누릴 수 있다.
 을: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선인 행복은 덕을 따르는 정신의 활동이며, 철학적 지혜를 갖추어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성에 따라 활동하고 그 이성을 가꾸는 사람은 신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다.

- ① 인간이 자연이라는 유일한 실체의 양태임을 모르고 있다.
- ② 완전한 행복을 위해서는 종교적 덕이 필요함을 모르고 있다.
- ③ 세상 만물이 각각 고유한 목적을 지니고 있음을 모르고 있다.
- ④ 인간의 노력만으로도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모르고 있다.
- ⑤ 지성적 덕이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조건임을 모르고 있다.

19.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올바른 나라를 만들기 위해 철학자들을 길러내는 것은 그들만을 행복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민 전체를 행복으로 이끌도록 하려는 것이다. 만약 선(善)의 이데아를 아는 철학자가 국가를 통치하지 않거나 국가의 통치자가 철학을 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 < 보 기 > —
- ㄱ. 지혜의 덕을 갖춘 사람이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
 - ㄴ. 철학자는 감각적 경험을 통해 이데아를 인식한다.
 - ㄷ. 최고의 이데아인 선의 이데아는 만물의 원인이다.
 - ㄹ. 시민 모두 철학자가 되어야만 올바른 나라가 된다.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20.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 중 옳지 않은 것은? [3점]

서술형 평가

◎ 문제: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갑: 고통과 쾌락만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지시해 준다. 윤리란 이해 당사자들이 최대량의 행복을 산출하는 행위를 하도록 이끌어 주는 기법이다.
 을: 행위가 도덕성을 갖는 것은 결과를 기대하고 행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의무로부터 행해졌기 때문이다. 의무란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에서 나오는 행위의 필연성이다.

◎ 학생 답안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도덕의 기반이라고 여겼으며, ㉡ 최대의 쾌락을 가져다주는 행위를 도덕적 행위로 보았다. 을은 ㉢ 인간의 자연적 경향성은 도덕의 기반이 될 수 없다고 여겼으며, ㉣ 선의지의 지배를 받는 행위를 도덕적 행위로 보았다. 한편 갑, 을은 모두 ㉤ 도덕을 행복한 삶에 이르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